

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노동사건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.

1. 관련 기사

□ 9.3.(목) 중앙일보, 검찰 지휘 사라지는데...특사경 사건은 60% 급증했다

- '노동감독관'의 형사사건 입건 수는 2022년 1만 4057건에서 2025년 2만 2737건으로 3년 사이 61% 가량 증가했다.
- 이에 따라 특사경 사건에 대한 검사의 '수사지휘권이' 사라지면 현장 혼란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.

2. 설명 내용

□ 고용노동부는 오는 10월 2일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응하여, 수사 역량 제고 및 자체 지휘체계 마련 등 철저히 준비하고 있음

- 노동감독관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직급별 맞춤형 사례 중심 교육 강화,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감독관전문교육기관 설치('27년 개원) 등을 추진하고 있음
 - 특히, 신규 노동감독관의 경우, 3년 이상 경력 있는 팀장 감독관이 있는 팀원으로 배치하여 팀장이 멘토로서 신규감독관과 사건 처리 방향이나 법리 검토 등을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
- 아울러, 일관성 있는 법 집행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청·지청의 자체 지휘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,
 -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·운영, 수사매뉴얼 제작 및 「노동사건 수사규칙(가칭)」 제정 등을 통해 수사의 공정성·객관성을 제고할 계획임

* <참고> 「노동감독관 수사역량 강화 교육계획」(8.23.발표) 주요 내용

- ❶ 신규감독관 배치 전 실무교육 강화(기존 이론 중심 → 실습 중심 개편)
- ❷ 재직감독관 수사전문성 제고(기존 외부기관·총론 위주 → 노동 사건 특화 실무 중심 개편)
- ❸ 중층적 수사관리체계 구축(기존 검사 지휘 → 팀·과장·기관장(+검사 보조) 중층적 지휘 개편)

□ 한편, 적극적인 사건 대응으로 형사입건·송치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나, 모든 개별·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아온 것은 아님

□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에 맞게 검사의 지도·조언 요청 등 검사와의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면서,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노동사건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

담당 부서	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 근로감독기획과	책임자	과 장	조아라 (044-202-7553)
		담당자	사무관	신유진 (044-202-7971)

